

VD Special

대한민국

오픈
Power 벤처

21세기의 독립투쟁과 벤처인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고막은 깊은 밤 전승의 방울소리에 터질 듯 찢어질 듯. 침울한 어둠 속에 짓눌렸던

고토(故土)의 하늘도 올림픽 거화(炬火)를 켜든 것처럼 화다닥 밝으려 하는구나..... 오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나...”

-손기정 선생 묘비에 쓰인 심훈 선생의 글 중에서-

글_ 이석봉(대덕넷 대표)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길을 묻다

어려울 때 찾는 곳이 있다. 바로 국립현충원이다. 현충탑에 분향한 뒤 발길을 옮기는 곳이 애국지사 묘역. 나라를 잃고 가족들은 뒷전으로 놓고, 나라를 찾으려 대륙을 치달았던 선조들이 누워계신 곳이다. 묘비명(墓碑銘) 하나하나에는 생면부지의 땅을 헤매며 오로지 조국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절절함이 배어나온다. 사연을 읽다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오히려 호사(豪奢)로 여겨진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 조국이, 우리가 밭을 딛고 서있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아무리 어려워도 선조들이 찾아준 땅이 있는 만큼 그 기반 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정신으로 일하면 못할게 무엇이 있겠는가하는 도전의식도 새롭게 샘솟는다.

벤처인 = 독립투사

벤처와 독립정신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외환위기는 국가 존망의 순간에 붓물처럼 터져 나온 것이 벤처기업이다. 대부분 기술을 기반으로 출범한 1세대 벤처인들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기술 종속에서 찾고 '기술 독립'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는 또한 사농공상이란 조선시대 이래의 가치관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다. 그동안 수단으로만 여겨지던 이공계가 머리가 돼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근년에 각 분야에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벤처'라는 핫불은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규모에서 스피드로, 책상에서 현장으로, 절대에서 상대로, 일극중심에서 다극화로...

하지만 무릇 모든 도전이 그러하듯이 성공으로 이르는 길을 험난했고 가파랐다. 술한 밤샘과 쇠를 녹일듯하던 열정에도 불구하고 무수하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 스스로 생을 포기한 기업인도 있고, 성공을 목전에 두고 건강을 잃어 유명을 달리한 기업인도 있다.

생산과 마케팅, 재무, 법률 등 기업 활동 시스템이 갖춰진 실리콘밸리의 이상적 생태계와는 달리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업은 정말 독립전쟁과 다름없었다.

여기서 쓰러진 많은 사람은 순국자들이다. 사람과 정보, 자금, 기술, 시장 등등 사업자원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업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밤을 새고, 영업을 위해 세계를 뛰어다녔다.

온갖 험한 꼴을 다 당하면서도 이 길이 본인과 가족은 물론 함께하는 직원들과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사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나갔다. 치고, 차이고, 깨지는 과정을 겪으며 벤처기업인들은 점점 프로 싸움꾼으로 업그레이드됐다.

21세기의 독립운동은 벤처입국

시장을 개척하며 전략(戰略)을 생각하게 됐고, 각개 전투가 아닌 상호 연계란 시스템 플레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값을 쳐줄지 알게 됐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노사란 대립적 개념이 아닌 파트너란 보완적 개념을 정립하게 됐다. 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줄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존재하고,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의 소중함도 느끼게 됐다.

고생은 인생을 더욱 그윽하게 만든다. 만주벌을 떠들며 나라 찾기에 생을 다 바친 선열들의 묘비명은 그분들의 삶과 현재 우리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시공을 초월해 나라를 찾겠다는,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독립의 몸짓은 현재진행형이다.

세상은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동반자로 문화를 나누고, 때로는 적으로 피를 흘렸던 중국과 일본이란 이웃은 우리에게 숙명이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실력밖에 없다. 그 실력은 다름 아닌 경제력이고, 그 주체는 기업이다. 개발연대 이후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이 된 사례가 손을 꼽히는 우리 경제는 고장난 시스템이다. 그 가운데 휴맥스를 비롯한 몇 개의 전문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짧은 시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벤처인이여, 국립묘지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길어올리자

앞으로 중국 및 일본과 벌이는 경제전쟁에서 현장을 뛰어다니며 싸워야 하는 무장(武將)들은 벤처인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막힌 혈로를 뚫어 중소기업이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경제의 허리를 탄탄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동북아에서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이다.

벤처기업들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어 여전히 유효한 키워드이다. 주변 상황이 어렵지만 한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주역이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음을 명심하며 모두 함께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보자. 그리고 국립묘지를 찾자.

시무식을 비롯해 사업하다 어려울 때,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 그 곳을 찾자. 독립운동 하던 선열들의 고난을 되새기며 이 땅의 후손들에게 굴욕이 아닌 번영을 물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새로운 힘을 받고 현재의 어려움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전쟁 과정에서 숨진 산업역군들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그날도 기대해본다.

